

목 차

국 외 연 수 보 고 서

- 연 수 국 :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 연수기간 : 2017. 2. 20. ~ 2. 28. [7박9일]
- 연수인원 : 19명(의원 15명 / 수행직원 4명)
- 연수목적 : 선진지 견학 / 우수문화 비교시찰

제1장. 국외연수 개요

- 연수배경 ----- 2
- 연수목적 ----- 2
- 연 수 국 ----- 2
- 연수기간 ----- 2
- 연수자 명단 ----- 3
- 연수경과보고 ----- 3
- 연수일정 ----- 4

제2장. 방문국 현황

- 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 개요----- 6

제3장. 연수내용

- 주요 도시별 견문 내용 ----- 9
- 주요 기관 방문 내용 ----- 15

제4장. 연수후기 및 소감 -----26

국 외 연 수 보 고 서

제1장 국외연수 개요

□ 연수 배경

- 일찍이 산업이 발달하고 민주혁명의 성지로 손꼽히는 프랑스, 스위스 주요 도시와 그리스·로마 문화가 꽃피었던 알프스 남쪽의 이탈리아 주요 도시에 대한 견문을 통해 그들의 역사와 국가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우리의 문화와 정책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차이점을 이해하고자 함.
- EU 결성을 통해 경제 뿐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 하나가 되어 세계 정세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들 지역의 경제·사회발전 원동력을 배우고 동시에 기관방문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살펴 보았음. 또한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가 있다”는 기치 아래 장애인 직업자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네바 장애인 복지시설을 탐방하고, 100년 이상 지방자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의 선진 의회시스템을 견학하여 모범적 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의정 활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이번 국외연수를 통해 국제적인 안목을 키우고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는 지구촌의 다양한 사회문화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의원들이 자기계발과 창의적, 혁신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함.

□ 연수 목적

- 국외연수를 통하여 국제적인 안목배양과 창의성 계발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제안과 방안을 제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함.

□ 연수국 :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 연수 기간 : 2017. 2. 20.(월) ~ 2. 28.(화) (7박9일)

□ 연수자 명단

○ 총 19명 : 구의원 15명, 수행직원 4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구의원	강 대 호	의 원	이 영 실
부의장	홍 성 욱	의 원	이 현 배
의회운영위원장	조 회 선	의 원	장 신 자
복지건설위원장	김 윤 수	의 원	조 성 연
의 원	김 명 찬	의 원	조 희 종
의 원	김 영 숙	수행직원	오 건 석
의 원	김 진 영	수행직원	오 경 호
의 원	서 인 서	수행직원	이 상 욱
의 원	왕 보 현	수행직원	김 난 희
의 원	은 승 희		

□ 연수 경과보고

- 2016. 11. 11. / 국외연수 실시여부를 위한 간담회 개최
- 2016. 11. 14. ~ 11. 18. / 국외연수 희망지 및 의원일정 의견조사
- 2017. 1. 26.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개최
- 2017. 2. 3. / 의원 공무국외연수 총괄 계획 수립
- 2017. 2. 7. / 대행업체 계약 체결
- 2017. 2. 20 ~ 2. 28. / 공무국외연수 실시
- 2017. 3. 14. / 국외연수보고회 개최

□ 연수일정

일자	도시	교통	시간	일 정
1일차 (2/20) 월요일	인천 파리	AF267 전용버스	09:45	인천 국제공항 → 파리 샤를 드골 국제공항
			14:00	프랑스 파리 문화탐방 <u>루브르박물관, 노트르담성당, 샹젤리제 거리 등</u>
2일차 (2/21) 화요일	프랑스 파리	전용버스	10:00	라빌레트 과학관 <u>과거 도살장 부지 성공적 도시재생 사례 탐방</u>
			14:00	파리 하수도 박물관 <u>파리 하수구 역사와 운용 사례 벤치마킹</u>
			17:00	프랑스 파리 문화탐방 <u>에펠탑, 몽마르트 언덕, 개선문 등</u>
3일차 (2/22) 수요일	프랑스 디종 리옹	전용버스	10:00	예술과 역사의 도시 디종 문화 탐방 <u>다르시 광장, 부르고뉴 대공궁전 등</u>
			18:00	프랑스 제2의 도시 리옹 문화탐방 <u>벨쿠르 광장, 구시가지, 로마 유적지 등</u>
4일차 (2/23) 목요일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샹베리	전용버스	11:00	Centre-Espoir <u>스위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견학</u>
			16:30	옛 사보아 공국의 수도였던 프랑스 샹베리 문화탐방 <u>시청 광장, 대성당, 미테랑 광장 등</u>

일자	도시	교통	시간	일 정
5일차 (2/24) 금요일	이탈리아 토리노 제노아	전용버스	14:00	토리노 시의회 <u>토리노 시의회 운영 현황 브리핑 및 협력방안 모색</u>
			16:00	토리노 시청 <u>토리노 도시재생센터 방문 및 성공적 도시 재생 사례 연구</u>
			18:00	아름다운 이탈리아 항구도시 제노아 탐방 <u>가리발디 거리, 콜롬버스 생가 등</u>
6일차 (2/25) 토요일	이탈리아 친켄테레 아레초	전용버스	10:00	친켄테레 마을 탐방 <u>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절벽 끝 친켄테레 마을 방문</u>
			14:00	피렌체와 로마를 잇는 교통요지, 아레초 탐방 <u>아레초 성벽, 산프란체스코 성당 등</u>
7일차 (2/26) 일요일	이탈리아 로마	전용버스	09:00	세계 문화유산의 보고, 로마 탐방 <u>바티칸 박물관, 성베드로성당, 콜로세움, 판테온 등</u>
8일차 (2/27) 월요일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AF9831 AF264	7:55	로마공항 → 파리 샤를드골공항
			13:10	파리 샤를드골공항 → 인천 국제공항
9일차 (2/28) 화요일			08:00	인천 국제공항 도착

제2장 방문국 현황

□ 프랑스 개요

구분	프랑스 공화국(Republique Francaise)
면적	549천km ² (한반도 면적의 약 2.4배)
인구	6595만 명(2013년 6월 기준) (세계 인구 21위)
수도	Paris
주요도시	Paris(224만 명), Lyon(171만 명), Marseille(198만 명)
언어	프랑스어
기후	대부분 지역이 온대성 기후이나 남부 지방은 지중해성 기후
민족구성	Gaul족(켈트족의 일파), 로마족, 노르만족, 프랑크족의 혼합
종교	가톨릭(88%), 이슬람교(10%), 개신교(2%), 유대교(1%), 기타 (4%)
건국일	1789년 7월 14일 (자유, 평등, 박애를 국가 이념으로 한 프랑스 혁명 발발일)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의원 내각제 가미)
국가원수	○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 2012. 5월 취임(5년 임기) ○ 총리 장 마크 애로(Jean-Marc Ayrault), 2012년 6월 임명
GDP	24,883억 달러(세계 6위)

□ 스위스 개요

구분	스위스(The Swiss Confederation)
면적	41,285km ² (※ 한국: 99,394km ²), 이 중 60%는 알프스 산지
인구	804만명(이중 외국인 인구는 186만명임)
수도	Bern
주요도시	취리히칸톤(1,406천명, 취리히 시 394천명), 제네바칸톤(463천명, 제네바 시 200천명), 베른 칸톤(992천명, 베른시 137천명)
언어	독일어(63.7%), 불어(20.4%), 이탈리아어(6.5%), 레토로만어(0.5%), 기타(7.5%)
기후	온난성 기후(1-2월 평균기온 -2~7℃, 7-8월 평균기온 18~28℃)
민족구성	게르만족과 켈트족 주류
종교	가톨릭(88%), 이슬람교(10%), 개신교(2%), 유대교(1%), 기타 (4%)
건국일	1291년 8월 1일
정부형태	직접 민주주의를 가미한 공화국 형태(정부 성향 중립)
국가원수	요한 슈나이더 암만(Johann N. Schneider-Ammann)
GDP	6,625억 달러(세계 20위)

□ 이탈리아 개요

구분	이탈리아 공화국(La Repubblica Italiana)
면적	301,333km ² (한반도의 약 1.36배)
인구	6,151만명
수도	Roma
주요도시	로마(4,194,068), 밀라노(3,156,694), 나폴리(3,080,873), 토리노(2,302,353), 팔레르모(1,249,577), 제노바(882,718)
언어	이탈리아어(국경 지역은 독일어, 프랑스어, 슬로베니아어 병용)
기후	지중해성 기후
민족구성	이탈리아인(북부에 프랑스계, 오스트리아계, 슬라브계 / 남부에 알바니아계, 그리스계 소수 거주)
종교	기독교(80%, 대부분 로마가톨릭이며 소수의 개신교 및 여호와의 증인), 기타(20%, 이슬람교 등)
건국일	1946년 6월 2일(이탈리아 공화국 선포)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 국가원수 : 조르조 나폴리타노 대통령(Giorgio Napolitano) ○ 총리 : 엔리코 레타(Enrico Letta, 2013년 4월 28일 취임)
GDP	18,525억 달러(세계 8위)

제3장 연수내용

□ 주요 도시별 견문 내용

1.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은 영국의 대영 박물관, 바티칸시티의 바티칸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힌다. 1190년 지어졌을 당시에는 요새에 불과했지만 16세기 중반 왕궁으로 재건축되면서 그 규모가 커졌다. 1793년 궁전 일부가 중앙 미술관으로 사용되면서 루브르는 궁전의 틀을 벗고 박물관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이후 5세기 동안 유럽 외 다양한 지역에서 수집한 회화, 조각 등 수많은 예술품은 오늘날 30만 점가량에 이른다.

각각의 전시관은 1층에서 3층까지로 이뤄져 있고, 지역과 시대에 따라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다.

1층에는 고대 이집트·그리스·로마 미술품이 전시돼 있다. <밀로의 비너스>도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2층은 유명한 작품이 많아 항상 붐비는 곳이다. 이탈리아·에스파냐·영국의 회화 및 19세기 프랑스 회화가 전시돼 있는데 앵그르, 다비드, 들라크루아와 같은 거장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헬레니즘 조각의 걸작인 <사모트라케의 니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도 2층에 전시돼 있다.

3층 역시 프랑스 회화를 시대별로 전시해놓았다. 2층과 함께 관람객에게 무척 인기 있는 곳으로, 네덜란드·플랑드르·독일의 회화도 전시되어 있다.



2. 몽마르트르 언덕 (프랑스 파리)

파리 시내에서 가장 높은 해발고도 129m의 언덕을 이룬다. ‘마르스(군신)의 언덕(Mont de Mercure)’이라는 뜻이라고도 하고, ‘순교자의 언덕(Mont des Martyrs)’에서 유래하였다고도 한다. 1860년 파리에 편입되었다. 272년 성(聖)도니와 2명의 제자가 순교한 곳이며, 12세기에 베네딕트파의 수녀원이 건립되었다. 그 일부인 로마네스크 양식의 생피에르 성당은 지금도 남아 있다. 2월혁명(1848) 전에 여기서 정치집회가 열렸으며, 파리코뮌(1871)도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1880년경부터 남쪽 비탈면에 카바레 등이 들어서기 시작하였으며, 기슭에 있는 클리시·블랑시·피가르 등의 광장 부근은 환락가가 되었다.

또한 근대미술의 발달을 촉진한 예술가들이 살았던 지역으로서도 유명하다. 특히 19세기 후반 이래 고흐·로트레크를 비롯한 많은 화가와 시인들이 모여들어 인상파·상징파·입체파 등의 발상지를 이루었으나, 20세기부터 점차 몽파르나스로 옮겨갔다. 그러나 언덕 위에 세워진 사크레외르 대성당(1910년 완성)은 순례지로서 신자들이 끊임없이 찾아들고 있으며, 또 유서 깊은 저택과 물랭루주 등의 카바레가 있다. 그 외에도 옛집이 늘어진 거리는 19세기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아직도 화가들이 많이 찾아든다.



3. 노트르담 대성당 (프랑스 파리)

파리 중앙 시테섬[島]에 있는 프랑스의 대표적 고딕건축의 하나이다. 섬에는 예로부터 갈로 로마의 신전이 있다(그 유품이 클뤼니 미술관에 있음). 그리스도교 시대에 성모와 성 스테파노에게 봉납된 두 개의 성당이 세워졌으나, 1163년에 사교 모리스 드 쉘리(Maurice de sully)가 새로 대성당을 기공했다.

프랑스 혁명으로 황폐해졌으나, 1845년부터 라쉬스(Jean Baptiste-Antoine Lassus, 1807~1857)와 바오레 르 뒤크가 중수(길이 130m, 폭 108m, 신랑 궁륭[身廊穹窿]의 높이 35m, 탑높이 69m), 서와 남의 바라창은 최초의 부분을 많이 남기고 있다. 조각은 서쪽 정면에 세 개의 문짝(『성안나』, 『최후의 심판』, 『성모』의 입구)과 팀파눔, 아치볼트와 하부측벽(『미덕과 악덕』 등)에 오래된 부분을 남기고 있다.



4. 브르고뉴 대공궁전 (프랑스 디종)

디종이 부르고뉴 공국의 수도였던 14~15세기의 궁전으로 1365년에 건립하였다. 이후 17세기에 부르고뉴의 삼부회를 개최하는 데 적합하도록 다시 건축하였으며, 오늘날에는 시장 집무실을 비롯한 여러 행정기관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궁전 안에는 디종순수미술관(Musee des Beaux-Arts Dijon)이 있는데, 이곳에는 중세의 작품들과 19세기 프랑스 예술품이 전시되어 있다. 궁전 앞에는 반원 모양의 리베라시옹 광장(Place de la Liberation)이 있다.

5. 친퀘테레 (이탈리아 제노아)

이탈리아 북서부 라 스페치아 지방의 친퀘테레는 '5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간직한 땅이다. 실제 5개의 각기 다른 개성의 해변마을은 파스텔톤의 집과 좁은 골목 길, 동화같은 포구와 소담스런 레스토랑이 어우러져 있다. 마을은 절벽 위의 좁은 길로 연결돼 있을 뿐 자동차는 쉽게 닿지 못한다. 마을 사이로는 해변 절벽을 따라 유일하게 열차가 오가며 그 열차에서 내려 원하는 마을에 하룻밤 묵은 뒤 다른 마을로 걷는 행복한 걷기 여행이 진행된다.

길 아래는 바다와 파도가, 길 위 산비탈은 포도, 올리브 밭이 어우러진 단아한 풍경들로 꾸며진다. 유네스코는 이 아름다운 마을들과 절벽 길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친퀘테레의 마을은 리오마지오레, 마나롤라, 코니글리아, 베르나차, 몬테로소 알 마레 등 다섯 곳이다.



6. 바티칸 박물관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의 산 피에트르 대성당에 인접한 교황궁 내에 있는 박물관이다. 역대 로마 교황이 수집한 방대한 미술품·고문서·자료를 수장(收藏)하고, 또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의 대화가에 의한 내부의 벽화·장식으로 유명하다.

창설은 율리우스 2세(재위 1503~1513) 때 벨베데레의 정원에 고대 조각이 전시된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일반에게 공개된 것은 클레멘스 14세 치하인 1773년이다. 현재 본관은 피오 클레멘티노미술관·도서관·성(聖)유물관·회화관 등

많은 부분으로 나뉘고, 또 각실은 보르지아실(室)·라파엘로실·지도실이라는 특유의 명칭으로 불린다. 미켈란젤로나 안젤리코의 벽화로 유명한 시스티나성당·파오리나성당·니코로 5세 성당 등도 미술관의 일부로 여기는 것이 보통이다.

주요 작품은 고대조각에 《아포크슈오메노스》 《벨베데레의 아폴로》 《벨베데레의 토르소》 《라오콘》, 고대 회화에 《오디세우스 이야기》 《아르드브란디니가(家)의 혼례도》, 중세 회화에 《웨르기리우스사본(寫本)》 《여호수아기(記)》, 그리고 르네상스 회화에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 《최후의 심판》, 라파엘로의 《성체의 논의》 《아테네학당》 《그리스도의 변용》,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성(聖)히에로니무스》, 카라바지오의 《그리스도의 매장》 등과 역사적인 고문서·공문서류도 소장되어 있다.



7. 콜로세움 (이탈리아 로마)

정식 명칭은 '플라비우스 원형경기장(Amphitheatrum Flavium)'이라고 한다. 플라비우스 왕조 때 세워진 것으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착공하여 80년 그의 아들 티투스 황제 때에 완성하였다. 본래는 비공식 이름이었던 콜로세움(Colosseum)의 유래에 대해서는 원형 경기장 근처에 있던 네로 황제의 거대한 청동상(Colossus Neronis)과 명칭이 혼동되었다는 설과 '거대하다'는 뜻의 이탈리아어 콜로살레(Colossale)와 어원이 같다는 설이 있는데 중세에는 그 자체가 '거대한 건축물'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했다.

검투사의 시합과 맹수연기(猛獸演技) 등이 시행되었으며, 그리스도교 박해 시대에는 신도들을 학살하는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피지배계층의 관점이나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다소 잔인한 측면이 있으나 고대 로마 시민들에게 원형 경기장은 경기를 보며 일체감을 느끼고 그 내용을 즐기는 하나의 공공 오락시설이었다.

한편, 로마 정치가들에게 원형경기장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 화합을 도모하며 때로는 로마나 귀족의 권위에 불복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보복을 암시하는 공간이었다. 직경의 긴 쪽은 188m, 짧은 쪽은 156m, 둘레는 527m의 타원형이고, 외벽(外壁)은 높이 48m로 4층이며, 하단으로부터 도리스식(式)·이오니아식·코린트식의 원주(圓柱)가 아치를 끼고 늘어져 있다. 내부는 약 5만 명을 수용하는 계단식 관람석이 방사상(放射狀)으로 설치되어 있다.



□ 주요 기관 방문 내용

1. 파리 라빌레트 공원 (Parc de la Villette) 방문

□ 방문일시 : 2017. 2. 21.(화) 10:00~11:30

□ 방문내용 : 관계자 브리핑 → 시설 내외부시찰

□ 방문목적 : 우리 구 내에도 신내차량기지 등 사전계획 없이는 향후 황폐화 될 여지가 있는 부지들이 잔존하고 있다. 공공기관 주도로 기존 기피시설이었던 도축장을 복합도시공원으로 재생함으로써 세계적인 명소로 탈바꿈한 라빌레트 공원을 시찰하여 우리 구 지역발전계획에 반영해 보고자 하였다.

□ 방문결과

- 우리 연수단이 이번에 방문한 라빌레트 공원은 1867년 이래로, 파리의 도살장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모인 곳이었다. 이후 “피와고기, 교역의 도시” 라는 별명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4만^m2 이상의 공간에 4,600마리 이상의 가축들을 도살하였다. 그 후 1974년 약 170만평에 이르는 황무지와 건물의 개발에 착수하였고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기 이전 단계에서 1977년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서 과학산업공원으로 개수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과학과 기술을 위한 국립 박물관의 건설”이라는 모토 아래 당시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프랑스 과학 수준을 높이려는 의도로 과학 산업 공원을 염두에 두고 개발에 착수하였다. 그 후 1979년 라빌레트 복합공원 전담기구가 신설되면서 ‘음악만을 위한 대규모 전용복합건축물 신설’, ‘국립과학기술박물관 건립’, ‘모두에게 개방되는 도시문화공간의 조성’ 이라는 3가지 대원칙 속에서 재개발을 시작하였다.
- 라빌레트는 당시 도축장 부지로서 북아프리카에서 온 이민노동자들이 밀집한 지역이었는데 정부는 이와 같은 도시 외곽의 소외된 우범 지역을 탈바꿈시키고자 하였다. 라빌레트 공원은 자연공원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문화기획공간으로서 과학박물관에서부터 야외 공연장, 콘서트홀 전시장, 아트 갤러리 그리고 레스

토랑, 카페, 오락시설, 숙박에 이르기까지 멀티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복합단지로서 개발되었다. 정부는 라빌레트의 ‘21세기형 도시공원’의 설계를 위하여 국제 공모전을 열었고, 모든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수석 건축가에 베르나르 추미를 선출함으로써 그 서막을 열기 시작하였다.

- 라빌레트 공원은 파리 동북부 지역에 커다란 부지 내에 라빌레트 과학 산업 박물관과 라빌레트 음악센터를 포함한 거대한 도시공원을 창조해 냈으므로, 프랑스 시민들에게 휴식과 문화와 생활을 연계시켜주는 시민을 위한 상징을 담은 공간으로 자기매김하였다. 또, 문화와 과학이라는 새로운 코드를 파리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파리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는 자긍심과 만족감을, 아이들에게는 과학과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의 체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자연공원의 역할에서 벗어나 문화의 기획공간으로서 시민들에게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는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휴식공간의 기능 뿐 만이 아니라, 파리 시민들에게 교장의 장 역할도 제공하는 것이었다. 또한 과거에 도시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던 도심의 역할을 도시의 외곽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지역에 있어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게 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종래 도심지의 환경을 고려한 중심 녹지화의 틀을 도시 외곽으로 옮겨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축을 형성함으로써 도시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도왔다는 점도 인상 깊었다.
- 현재 라빌레트가 진행하는 상당수의 프로그램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라빌레트 공원은 공원 그 자체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라빌레트의 운영방침, 콘텐츠, 프로그램의 구성에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었기에 더 큰 의의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2. 파리 하수구 박물관 견학

- 방문일시 : 2017. 2. 21.(화) 14:00~15:30
- 방문내용 : 관계자 브리핑 → 시설 내·외부시찰
- 방문목적 : 파리 하수구는 150년 이상 보수에 보수를 거듭하면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진화된 하수구의 모델로 손꼽히고 있다. 이 가운데 470미터 공간을 지하박물관으로 만들어 입장료를 받고 관람시키고 있을 정도로 파리의 자랑거리이기도 한 하수도 박물관을 견학하여, 선진 방재시스템 운영과 근대유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방문결과

- 파리 하수구 박물관은 파리 7구 레지스탕스 광장(Place de la Resistance)에 자리한다.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파리의 하수 처리 시설 역사 등을 살필 수 있는 박물관으로 실제 하수도의 한 구간을 이용해 만들었다. 이곳은 유럽 하수구 관광의 효시로 꼽히는데 1867년 흰 옷을 입은 하수도 기술자들이 특별 투어 마차나 바지선을 탄 방문객을 안내한 것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 우리 연수단은 470m 가량의 지하터널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지상에서는 보기 드문 파리의 전기시설 및 전화설비, 그리고 가스배관 시설 등을 직접 볼 수 있었다. 파리 시내에서는 우리 나라의 그 흔한 전신주 하나 볼 수 없었는데, 파리 시는 모든 통신망을 하수도에 절연재로 연결해 지하화함으로써 가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되었다는 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 또한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파리 하수 처리 시설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구비해 놓고 있었는데, 마네킹 및 모형 시설을 이용하여 하수 처리 시설을 관리 작업을 이해하기 쉽게 재현해 놓기도 했다. 파리 하수구의 역사와 구조 뿐 아니라 하수구에서의 위급상황 대처법, 청소법 혹은 맨홀에 귀중품을 빠뜨렸을 때 찾는 방법 등 실용적이고 재밌는 정보도 제공하고 있었다. 우리 연수단은 전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하수구 시설이 광범위하게 발달되어 있는 파리의 지하 모습을 생생하게 경험 할 수 있었다.
- 총 길이 2,600킬로미터에 이르는 배수관을 통해 빗물은 물론 가정용 하수, 공장의 폐수가 따로 흘러가도록 하여 결코 세느강이 오염되거나 범람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프랑스 하수구 자랑의 요지였지만, 작년 여름 폭우로 인해 부분적으로 이상이 있어 향후 대대적인 보강공사가 계획되어 있다는

관계자의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우리 구의 하수, 배수 시스템 수준은 이미 프랑스를 능가하고 있지만, 눈길조차 주지않던 지하 배수로를 시민들에게 단순 공개하는 차원을 넘어 에코뮤지엄을 조성해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낸 아이디어는 복기할 만한 것이었다. 우리 구도 최근 망우역사문화공원, 옹기 테마공원 등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때론 가장 흔한 것도 잘 조합하여 브랜드화 한다면 충분히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3. 스위스 제네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Centre-Espoir 방문

□ 방문일시 : 2017. 2. 23(목) 11:00~14:30

□ 방문내용 : 조별 시설견학 → 강당(시청각실) → 질의-응답의 시간

□ 방문목적 : 스위스는 “모든 국민은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다” 라는 국가 모토를 기치로 장애인 직업자활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제작하여 시장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의 재능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부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 방문결과

○ 희망센터(Centre-Espoir)는 국가와 제네바시, 협력기관들과 공동으로 1988년 5월 개소하였다. 18~65세 사이의 약물 중독 등 다양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생활 및 작업장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120개의 객실이 있는 숙박시설과 65개의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이 함께 일을 하며 관계를 맺어가게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효과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작업장에서의 근로를 통해 장애인들은 운동 능력과 작품을 만들기 위한 창의력, 상상력, 비판적 사고 등의 정신적 능력을 함께 키워나가고 있었다.

○ 스위스는 장애인 시설은 우리 나라와는 다른 두 가지 인상 깊은 점이 있었다. 하나는, 시설 장애인 대부분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표정이 밝았으며 낮은 사람들에게도 스스럼 없이 친근하게 다가온다는 점이였다. 희망센터에서는 목공예, 도기, 생활용품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작업장에는 반드시 1인 이상 일반 주민이 작업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 Zbinden Helen 관장은 장애인들이 향후 시설을 나갈 경우를 대비하여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일반 주민들을 함께 작업장에 배치하여 시설 장애인들의 사회성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 다른 하나는, 대부분 단순 노동력을 투입해 질 낮은 제품들을 생산해 공공 기관이 구매 지원을 하지 않으면 운영이 힘든 우리나라 장애인 직업시설과는 달리 희망센터에서는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시장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이였다. 희망센터는 제품 제작 수를 줄이되 정교하고 질 높은 제품을 생산하여 시설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시장에 대부분 판매 되고 있었다. 정기적으로 해당 분야 기술이 있는 지역 자원봉사자나 기업들의 기술 지원도 충분히 연계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 “우리는 모든 장애인의 개성을 존중합니다.”

Helen 관장의 이 한 마디는 우리 연수단의 가슴에 깊은 울림과 여운을 주었다. 시설 장애인들은 작업시간을 주 8시간에서 30시간까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었으며, 시설에서는 장애인들이 적성을 찾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었다. 우리 연수단은 장애인들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직접 사회에 참여 하여 제 몫을 해낼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스위스 장애인 정책의 주요 골자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고민에 앞서 장애인 인식에 대한 큰 담론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4. 토리노 시의회 방문

□ 방문일시 : 2017. 2. 24(금) 14:00~15:30

□ 방문내용 : 시의회 카운실룸 → 질의·응답의 시간

□ 방문목적

지방자치제도의 전통이 비교적 오래되어 선진 의회제도가 발전되어 있는 토리노시 의회를 방문하여 주요 의회제도 및 의정활동에 대해 비교해 보았다.

□ 방문결과

- 우리가 약속한 시각에 토리노시 의회에 도착하자 의회 관계자가 친절하게 맞이하며 실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리노 시의회 카운실룸으로 안내하여 토리노시 의회 소개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 토리노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여 입법기관으로 시정부를 감시 견제하고 조례와 예산을 검토 승인하기 위해 입법권, 질문권, 예산심사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여론을 반영하고 시정부를 감시하며, 시민의 권리향상의 책임을 지고 총 12개 선거구에서 52명이 선출되는데,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었다.
- 본회의장(Council room)은 규모가 크고 붉은색 벨벳으로 디자인되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본회의장은 1758년 처음 만들어져 1882년 집기들을 일부 교체한 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루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들림에도 의원들은 불편없이 시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130년이 넘는 의정기간 동안 그 누구도 불만을 호소하는 의원이나 시민이 없었다고 한다. 그 여유로움과 옛 전통을 지키려는 시의회의 노력에 절로 감탄이 흘러 나왔다.

- 행사는 카를로타 살레르노(Carlotta Salerno) 시당 대표의 환영인사로 시작되었다. 아시아 국가 자치단체가 토리노 시의회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며, 매우 영광스럽다는 모두인사를 시작으로 토리노 시의회의 역사와 정당 역할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한국에 대해서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선 도전 실패를 언급하는 등 비교적 국내 정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다.
- 에르비오 라볼타(Erbio Lavolta) 시의회 의장은 특이하게도 소속당이 민중당 소속 의원이었다. 현재 시정부와 시의회 여당의 정당이 같아 정책을 집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으며, 시의회가 가장 주안을 두는 부분은 시민의 시정 참여라고 언급했다. 실제 방청석에는 사전 방청 확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우리 구의회와의 면담 과정을 지켜보는 시민들이 여럿 있었다. 행사 진행과정에 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그 누구의 제재도 없었는데, 허울만 좋은 시민참여 확대가 아니라 직접 시민과 호흡하고 스스로 없이 의사 진행을 해나가는 과정이 참으로 흥미로웠다.



5. 토리노 시 재생센터(Urban center) 방문

□ 방문일시 : 2017. 2. 24(금) 16:00~17:30

□ 방문내용 : 토리노 시 재생센터 → 질의응답의 시간

□ 방문목적

피아트(Fiat) 자동차 공장이 도시 외부로 이전함에 따라 도시 공동화 현상을 겪을 뻔 했던 토리노 시의 성공적 도시 재생 사례를 살펴보고, 중심 역할을 담당했던 토리노 시 재생센터를 견학하여 우리 구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 방문결과

- 토리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피아트(Fiat) 자동차 공장이 있던 도시로 이 공장이 외부로 이전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도시재생을 선택한 도시이다. 치아라 루치니(Chira Lucchini) 센터장은 피아트 본사가 이전한 후 공장 건물은 고스란히 흉물로 남게 되었으며, 이전 후 토리노 시 인구의 17.5%가 감소하는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 하지만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토리노 시가 찾은 돌파구는 오래된 건물을 활용하여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계획에는 창조적인 전략이 있었는데 공업도시의 역사성이 담긴 전통 건물의 외관을 보존하며 내부를 개조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 방식에 피아트 공장의 건물이 포함되었음은 물론이다.
- 이 일은 토리노 시와 기업체 및 시민으로 구성된 민관협력단이 협력하여 진행하였는데, 이 협력단은 1997년에 설립되었으며 본격적인 활동은 2000년부터 한 것으로 ‘토리노 국제협회’와 ‘민간협력 투자 유치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1차 계획에 따라 도심재생 프로젝트가 성공하자 2002년에 이르러서는 2020년까지의 제2차 전략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 2차 전략계획은 시내 곳곳의 도심을 재개발하고 올림픽과 같은 국제경기를 유치하여 긍정적인 경제승수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알다시피 토리노는 2006년 동계올림픽, 2007 동계 유니버시아드 그리고 2008년 국제 건축대전과 같은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하였고 지금도 제2의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 토리노는 기존 도시의 역사적 증언인 건축물을 보존하면서 도시를 새롭게 재탄생시켰다. 토리노의 교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민관협력을 통해 도시 재생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시장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국제 협회가 비전을 정립하고 사업을 기획하는 한편, 사업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역량을 발휘하였다. 시는 홍보와 투자 유치 등의 기능을 보완적으로 수행하며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완벽한 거버넌스 체계를 이루었다.
토리노 시 도시재생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연수단은 반목 없는 성공적 도시 재생을 위해서 민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세삼 느끼게 되었다.



제4장 연수후기 및 소감

- 이번 7박 9일간의 유럽 국외연수는 근현대 발전을 견인해 온 유럽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제도나 정책, 문화를 경험하고 벤치마킹하여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창의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기 위한 기회를 만들고자 추진되었다.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나름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여러 시찰지를 돌아보며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역시 공공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도시계획, 복지 등 정책 여러 분야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투영하고 진행과정이 다소 느리더라도 큰 갈등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 연수단에게는 상당히 흥미로웠다.
우리나라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신속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중시하는 우수한 면이 많지만, 인근 주민을 설득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중시하고 이해관계자를 적극 정책과정에 참여시키는 점은 유럽 국가에서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 배려와 소통이 현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장 큰 가치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치들이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정책 수립이라는 중대한 결정과정에서도 큰 무리없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유럽식 민주주의의 저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 7박 9일 동안의 유럽 공무연수를 통해 의원 모두가 글로벌 마인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개별적인 의정활동 측면에서도 스스로의 변화를 고민하게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 다른 세계의 문화와 환경, 역사적인 사실과 그들의 현재 삶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과 중랑구가 처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타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것 역시 금번 연수의 큰 의의라 할 것이다.
앞으로 해당 방문국의 우수사례를 우리 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연수후기를 마치고자 한다.